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순 구¹⁾ · 이 미 련¹⁾

1) 대구보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Group-Bullied among Adolescents

Kim, Soon-Gu¹⁾ · Lee, Mi-Ryon¹⁾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fe experiences of adolescents who were the object of group bullying. **Metho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as done by the Colaizzi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participants and by further follow-up observations. Ten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t that time five of them had already overcome the situation, three were still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the other two participants were in a 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Results:** In the analysis 109 significant statements, 31 themes, 12 clusters of themes and 5 categories emerged. The 5 categories are as follows ; feeling inferiority, not being cared for, loneliness, suffering pain and building a relationship and resignation. The 12 clusters of themes are as follows ; dejection, not being sturdy, mal-function of the family, indifference of the society, loneliness, vexation, suffering, grievance, positive intervention of a support system, exertion, harmonizing and abandonmen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professionals to understand these adolescents. Approaching the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hole man, can also be a practical method for teaching.

Key words : Adolescent, Phenomenology, Experience, Group-Bullied

주요어 :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현상학

교신저자 : 김순구(E-mail : heatha@hanmail.net)

투고일: 2006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22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oon-Gu(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San 7, Taejeon-Dong, Buk-gu, Daegu, Korea

Tel: 82-53-320-1466 Fax: 82-53-320-1470 E-mail: heatha@hanmail.net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을 위기로 몰고 있는 유해 요인 중 하나가 집단따돌림이다. 집단따돌림은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는 서울시 46.7%(Lim, 2000), 강원도 춘천시 56.3%(Jung, 2000), 경남 김해시 30.21%(Park, 2001)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집단따돌림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청소년이 12명에 이르러(Chosun Ilbo, 2006), 집단따돌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청소년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아동은 이성 및 동성의 친구들과 새롭고 좀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며, 부모나 다른 어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 자립, 결혼 및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며, 일련의 가치 및 윤리적 체계를 습득하여 이념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이 때 또래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Kim, 1997). 그러므로 이 시기에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집단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한 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지속적인 언어적·신체적 모든 행위를 말한다(Koo, 1997).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원인은 피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과 집단따돌림을 낳는 구조적·제도적인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im, 2001; Koo, 1997; Lee, 1999),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가정, 학교 및 주위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며,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우관계와 학교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부적응행동을 나타낸다(Cashman, 1998; Kim, 1999; Lee, 2000; Rossow & Lauritzen, 2001). 그러므로 다양한 수준의 전략으로 그들이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간호 실무에서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간호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교사)가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문제해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Hong, 2000), 지금까지는 집단따돌림 피해 현상에 근접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해 청소년의 상처는 더욱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실제로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간호중재 모색에 앞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들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로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 질적 연구이며, 특히 현상학적 연구는 주관과 객관적 자료를 포함시키면서 체험의 지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간이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간호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Choi, 1993),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따돌림에 대한 단순한 현상파악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단 따돌림 피해 현상을 기술하는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성공적인 집단따돌림 극복을 위한 간호중재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문제

본 연구 문제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귀납적이고 서술적인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자의 연구취지를 이해하고 허락해준 친척, 교사, 사회복지사 및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 의

사로부터 집단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소개받은 후, 참여자와 그들의 부모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0명이었다. 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B시(4명), T시(4명), 경북 K시(1명), 경남 K시(1명)였다. 참여자 중 5명은 집단따돌림을 극복한 상태였으며, 3명은 현재 경험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부적응 문제로 휴학한 상태였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기간도 1주일에서부터 8년까지 다양하였고, 참여자의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평균 15세였으며, 중학교 1, 2학년이 각각 5명과 2명, 고등학교 1, 2학년이 각각 2명과 1명이었다. 10명 중 7명은 남학생이었다. 2명의 참여자는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를 진단 받았으며, 종교는 무교 5명, 기독교 4명, 불교 1명이었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6명이었고 나머지는 막내였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참여자는 7명이었다.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익명을 사용할 것, 면담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연구 진행과정 중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연구자의 훈련과정

본 연구를 위한 교육적 준비과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질적 연구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문헌을 탐독하였고,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자료수집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약 6개월간이었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전 참여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난 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의 형태는 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얼굴표정과 몸짓, 태도 등을 관찰하여 메모노트를 하였다. 면담은 가능한 비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주된 질문은 “친구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요?”, “학교생활은 어떠합니까?”, “친구들과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나요?”,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등과 같은 폭넓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대담 내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

지 않고 포화되는 시점까지 진행되었다.

면담시기와 장소는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였으며 주로 관련 기관의 상담실, 참여자의 집, 연구자의 집이나 연구실 및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시 전화벨이 울리지 않도록 전화코드를 뽑아두거나 커피숍의 음악소리를 낮게 하여 주의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기에 녹음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횟수는 1인당 평균 1~3회 정도였고, 1회 면담 시 소요시간은 40분~1시간 50분이었다. 1시간 분량의 수집된 자료를 필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시간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진술 그대로를 옮겨 기술하였다.
- 둘째,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탐구현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다.
- 셋째,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로부터 연구자의 언어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 넷째, 도출된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를 뽑고,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주제모음과 범주로 분류하였다.
- 다섯째, 분석된 내용들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한 후, 이것을 연구현상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기술로 최종적으로 기술하였다.
- 여섯째,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질문하였다. 검증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대체로 타당하게 표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참여자 선정 시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를 고루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의 진실왜곡이나 감춤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는 관계유지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면담하여 깊고 풍부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담 동안 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다시 하거나 여러 차례 면담으로 반복 확인해 보았으며, 자료 분석 과정 중에도 수집된 자료를 계속 비교하며 구성된

의미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참여자에게 다시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지 물어보아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 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로부터

<표 1>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가난하여 또래집단에 끼지 못함, 가난한 것을 감추고 싶음	경제적 결핍	의기소침	
공부에 대한 흥미부족, 잦은 전학으로 인한 성적부진	학업성적 부진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지 않음, 부모에게 숨김, 교사에게 말 못함, 친구에게 기대지 못함, 상담도우미에게 알리지 못함, 내성적임, 무조건 양보함	소극적임	당차지 못함	열등하다고 느낌
낮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 부족, 말수가 적어짐, 유머감각이 부족함	사회성 부족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낌, 친구에게 알아봐 보임,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낌, 끈기 있게 끝까지 못함, 지저분한 행동을 함, 바보 같은 행동을 함	모자람		
부모의 구박으로 스트레스 쌓임, 부모의 무시로 기분 나쁨, 동생들에 비해 차별대우 받음	가족의 학대	가족의 역기능	
혼자 결정하지 못함, 부모가 해결해줌	가족의 과잉보호		
가족과의 대화부족, 형제들이 몰라줌, 부모의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가해자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용서	가족의 무관심		돌봄을 받지 못함
교사의 문제에 대한 인식결여, 교사가 알아채지 못함	교사의 무관심	사회의 무관심	
친구에게 외면당함, 친구들까지 동조함	친구의 무관심		
상담도우미의 비밀노출로 힘들어짐	상담도우미의 무관심		
친구들과의 놀이에 끼지 못함,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함, 친구로서의 교제를 거부당함	소외됨	외로움	외로움
대화할 상대가 없음, 친구가 없어짐	쓸쓸함		
가해자가 물건을 숨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함, 가해자가 물건을 훼손함, 물건을 빼앗김	경제적 손실로 속상함	속상함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함, 말로 위협받음, 놀림 당함, 욕먹음, 잊어버릴 수 없음, 악몽에 시달림, 가출충동을 느낌, 자살충동을 느낌	정신적 괴로움		
잔심부름 함, 가해자가 물건을 던짐, 가해자가 머리채를 잡아당김, 꼬집힘, 손가락을 비틀림, 가해자의 칼에 배임, 맞음	신체적 괴로움	괴로움	고통스러움
초조함, 친구들이 무서움, 불안함	두려움		
친구가 미움, 화가 남	분노	원망스러움	
혼내주고 싶음, 복수하고 싶음, 죽이고 싶음	적개심		
부모가 대신 혼내줌, 부모가 대응행동을 지도함, 가족이 격려함, 친척이 위로함	가족의 도움		
교사가 중재함, 교사가 대응행동을 지도함, 학교에서 봉사활동 함	교사의 도움	지지체계의 적극개입	
다른 친구가 말려줌, 다른 친구가 교사에게 알림, 다른 친구들이 가해자와의 싸움을 격려함	친구의 도움		
청소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함, 취미활동에 몰입해봄, 정신과 재활치료를 받음, 신체적 증상에 대하여 검사 받아 봄	사회적 도움		
신앙생활에 몰입해 봄, 마음을 고쳐먹음, 반발함, 대응해봄	마음 다지기	애씀	관계 열어 가기 및 체념
교사에게 알림, 부모에게 알림, 상담도우미의 도움을 요청함,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함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기선제압을 시도해봄, 가해자와 싸움을 시도함, 다시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	적극적으로 맞섬		
가해자의 사과를 받음	용서함	어우러지기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호전됨, 가해자와 다시 친구가 됨,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김	관계 회복		
자존심이 무너짐, 움츠러듦, 때리고 싶지만 할 수 없음	위축되어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피곤함, 짜증남, 학교생활이 즐겁지 못함, 학업에 대한 의욕상실	무기력해짐	포기	
피해 다짐, 참을 수밖에 없음, 학교 가기 싫음, 전학 가고 싶음, 결석함, 휴학함	회피함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109개의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으며, 이 구성된 의미는 31개의 주제로, 주제는 다시 12개의 주제모음과 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표 1>.

범주 1 : 열등하다고 느낌

범주 1은 《의기소침》과 《당차지 못함》의 2가지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모음 1 《의기소침》은 “개네들은 고가 브랜드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구경도 못 한 거예요. 거기에 저는 끼어 들 수가 없죠. 너 따위가 무얼 아나 면서 알지 못한다는 듯이...”의 <경제적 결핍>과 “제가 학생인데 공부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해 갖고 학교가 오기 싫으니까 더 싫은 거죠. 재미없고, 싫고...”의 <학업성적 부진>으로 이루어졌다.

의기소침은 경제적인 결핍과 학업성적 부진으로 분류되었다. 심리적으로 민감한 연령의 참여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학업성적이 저조하여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모음 2 《당차지 못함》은 “중학교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친구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린 것 같아요”의 <소극적임>과 “다가오는 사람도 한 명 없고 내가 다가가지도 못하겠고 낮 설어서”의 <사회성 부족>, “내가 더러운 짓 했거든요. 코 확 흘리고요. 또요 내가요 침 막 흘리고요 그랬거든요.”의 <모자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소극적이고 낮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정신지체로 수업시간에 떨어뜨린 행동을 하여 모자람 등의 당차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범주 2 : 돌봄을 받지 못함

범주 2는 《가족의 역기능》과 《사회의 무관심》의 2가지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모음 1 《가족의 역기능》은 “그 날 당하고 왔다고 병원에 가서도 억수로 구박 많이 받아 가지고요. 그래 기분엔 스트레스도 받아 가지고요 그랬어요”의 <가족의 학대>, “내가 숙제를 안 해도 엄마가 잘 해주고 뭐 책가방도 잃어버려 갖고 엄마가 학교에 있으니까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의 <가족의 과잉보호>, “형이나 엄마 아버지한테는 학교 이야기 못 해 봤어요. 형이나 부모님은 제 얘기를 안 들어 주셔요.”, “대충 얘기했는데, 언니가 짜증을 냈어요. 자기한테 얘기를 하지 말래요. 언니가 좀 미웠어요.”의 <가족의 무관심>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부모는 집단따돌림을 받은 참여자를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학대하고, 과제를 대신해주거나 가해자가 숨긴 가방을 대신 찾아주는 등의 과잉보호를 하며, 참여자가 힘든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짜증을 내면서 진지하게 응해주지 않고 무관심하여 가족의 역기능을 나타내었다.

주제모음 2 《사회의 무관심》은 “체육 선생님이 왜 고자질 했나? 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뭐 남자가 그런 일로 될 엄마 아빠한테 말하냐 하면서...”, “선생님은 눈치를 못 채시죠. 선생님 필기하거나 그럴 때 안볼 때 마구 던지니까”의 <교사의 무관심>, “친구들 도와주세요 해도 도와줄라는 사람이 없어요.”, “반장은 옆에서 실실실 웃고 있고요. 그게 기분이 나빠요.”의 <친구의 무관심>, “도저히 힘들어서 거기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도우미가) 학교에 와 가지고 제 신분을 비밀로 해준다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저를 수업시간에 불러 가지고 누가 때렸나?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애들이 금방 알아채죠”의 <상담도우미의 무관심>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교사가 참여자의 집단따돌림 피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거나, 참여자를 고자질하는 학생으로 생각하여 학생지도에 무관심하고, 동료들도 도움을 요청해도 외면하여 친구의 아픔에 관심이 없으며, 교육청의 상담도우미는 상담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담임이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노출시켜 사회 구성원이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범주 3 : 외로움

범주 3은 《외로움》이란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모음 1 《외로움》은 “저도요 같이 놀려고 갔는데요. 싫어 너는 안 끼워 줘 이렇게 애들이 그랬어요”의 <소외됨>과 “내가 겪고 있을 당시에는 내가 말해도 괴롭고 이렇게 상대방도 괴롭잖아요. 그냥 말할 수만 있다면...”, “왕따 시켜서 친구도 안 어울려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나도 화가... 친구가 없었어”의 <쓸쓸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지 않아 소외되고, 자신의 괴로운 일에 대하여 말할 상대가 없으며 점점 친구들이 없어지면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외로움을 나타내었다.

범주 4 : 고통스러움

범주 4는 《속상함》, 《괴로움》, 《원망스러움》의 3가지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모음 1 《속상함》은 “내 주민등록번호 알아 갖고 그것 가지고 채팅을 하고 그랬어요.”, “애들이요 제가 좋은 물건 가

지고 오면 가지고 놀다가 부시고요”, “애들이 2달러씩 자기들한테 주면 학교생활 편하게 해준대요. 안 줄려다가 어쩔 수 없이 줬어요.”의 <경제적 손실로 속상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가해자가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채팅을 하고, 물건을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며, 돈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참여자는 경제적 손실로 속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주제모음 2 <괴로움>은 “발음이 또렷하지 않으니 애들이 어리광부린다고 놀려요. 애 목소리 같으면서..”, “막 욕까지 하고. 재수 없어. xxx 막 이려고... 제가 지나갈 때 그렇게 해요.”, “제가 똑같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때리는 꿈도 악몽 같은 거 꾸고 그래요.”, “학교 옥상에서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괴롭히지 않겠지...”의 <정신적 괴로움>, “4학년 때부터 팔이나 몸을 자꾸 꼬집고 했어요.”, “수업시간에 앞에 있는 친구가 뒤돌아서 칼로, 칼로 손등을 그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발로 갖다 차고 빗자루 갖다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거의 매일이었어요.”의 <신체적 괴로움>,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초조하고”, “친구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 있거나 계속 돌아다녔어요 불안해서...”의 <두려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가해자들은 참여자를 놀리고 욕하는 등의 행동으로 괴로움을 주어 견디기 힘들고 악몽을 꾸고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는 등의 정신적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또한 꼬집고 손등을 칼로 베고 구타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체적 괴로움을 가했으며,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친구들이 무서워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주제모음 3 <원망스러움>은 “그래 열 받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요 마음속으로요 욕도 하고요.”의 <분노>와 “친구를 때리고 싶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려고 생각했죠.”, “감방에 보내고 싶어요.”, “내가 죽이고 싶었어요 힘들게 하니까...”의 <적개심>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화가 나는 분노를 느끼고, 복수하고 싶은 적개심을 느끼면서 친구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5 : 관계 열어가기 및 체념

범주 5는 <지지체계의 적극개입>, <애씀>, <어우러지기>, <포기>의 4가지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모음 1 <지지체계의 적극개입>은 “엄마랑 목욕 갔는데 옷 벗었는데 명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알았어요 친구가 때린 거를. 운동장에서 엄마가 그 애들을 야단쳤어

요.”, “아버지는 힘내라고, 친구와 어울리라고, 노력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의 <가족의 도움>, “(담임선생님이 개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저랑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더 개입되면, 담임이 데려간다고 경찰에...”, “지킴이가 있어 가지고 괴롭히는 애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적어 내 가지고 혼내는 일이 있었거든요.”의 <교사의 도움>, “부반장은 괴롭히지 마라하고 막 말리고”, “그 애가 막 저를 괴롭히니까 한 번 혼내주라고, 한번 맞장 떠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싸울 때 지내들이 같이 있어준대요.”의 <친구의 도움>, “병원에 오게 됐어요. 약도 먹고 재활치료 받고 이려는 거라서요”, “약간 어지러운 증세도 있어서요 빈혈 검사도 해봤거든요. 빈혈은 아니래요.”의 <사회적 도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부모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혼내주거나 격려해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교사가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며, 친구가 가해자를 말리거나 해결방법을 제시해 도와주고, 정신과 진료나 임상검사 등을 통한 사회의 도움을 받는 등 지지체계가 적극 개입함을 뜻한다.

주제모음 2 <애씀>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그 애가 때리면은 죄를 받게 된다는 거. 넘어진다는지 다친다는지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줘서 가다가 사고가 난다는지...”,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선생님한테 말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나 생각이 들고 마음을 그렇게 먹었거든요”의 <마음 다지기>, “한번은 제가 엄마 아빠한테 알려서 담임선생님께 전화해서 학생들이 끌려가서 야단맞았던 거 있었어요.”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자꾸 괴롭히니까 확 싸워 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싸웠는데요. 끝장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의 <적극적으로 맞섬>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신앙생활에 몰입하거나 자살하려는 마음을 고쳐먹어 마음을 다지고, 따돌림당하는 사실을 교사나 부모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맞붙어 싸우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맞서서 애쓰고 있음이 나타났다.

주제모음 3 <어우러지기>는 “그 애가 쓴 각서하고 저거 엄마가 쓴 각서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적어 냈나 하면은요 저거 엄마는요 한번만 더 그러면은 처벌을 원한다고 적어왔고 지는 한번만 더 그러면은 퇴학을 당할 것이라고.”의 <용서함>과 “싸우고 나서요 애들이 심부름도 안 시키고 장난도 안쳤어요. 애들이 안 괴롭혔어요. 속이 후련했어요.”의 <관계 회복>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가해자를 용서하였으며, 가해자와 다

시 친구가 되어 또래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어우러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주제모음 4 《포기》는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애들이 내려가는 계단에서 때리거나 별로 거슬릴 것도 없는데 점점 움추려 들었죠.”의 <위축되어감>, “아무 생각도... 뭐 하기가 싫어져요”, “재미없다 학교가. 학교가 즐겁지 않죠.”의 <무기력해짐>, “쉬는 시간마다 마주치니까. 제가 일부러 개를 피하죠”, “친구는 계속 다니고 있고 엄마하고 전 집에 있어요. 제가요 학교를 휴학했거든요.”의 <회피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하여 자존심 상하고 움츠러들어 점점 위축되어가며,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학교생활에 재미나 즐거움이 없어 무기력해지고, 가해자들을 피해 다니면서 적응하지 못해 휴학함으로써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구들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므로 열등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여 외롭고 무척 고통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대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지체계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도 마음을 다져서 적극적으로 맞섬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가해자를 용서하여 다시 사이가 회복되므로 정상적인 친구관계를 열었다. 그렇지 못한 대상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면서 회피하고 포기하여 체념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논 의

대상자 측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진 집단따돌림의 문제점과 특성에 관한 연구와 비교분석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중재를 위한 간호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의 경험은 “열등하다고 느낌”, “돌봄을 받지 못함”, “외로움”, “고통스러움”, “관계 열어가기 및 체념” 등의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열등하다는 것은 그 정도가 보통보다 떨어진다는 것인데 참여자들은 경제적 상태, 학업성적, 성격, 사회성, 용기, 끈기, 지능, 자신감 등의 측면에서 친구들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으로 고립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허약 및 결함, 단정하지 못한 품행, 학업능력의 부족, 적절하지 못한 감정 표현, 소극적인 태도, 낮은 사교성과 자기 존중감, 자신감과 자아개념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Jung, Kim, Lee,

Kim, & Song, 2002; Kim, 2001; Koo, 1997; Sharp, 1996)와 유사하였다.

아동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성공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열악한 경제적 조건이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서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부족한 사람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싸주면서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며 어울려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적응도가 달라지는데(Hong, 2001), 부모의 비 일관적이고 거부적이며 통제적, 과잉 보호적인 자녀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정적인 성격형성을 유도하여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Kim, 1998; 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 연구 참여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구박받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따돌림 받은 상처에 더해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깊어짐을 알 수 있었다. 구박하는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는 참여자를 가엾게 여겨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과잉보호 및 지지적이지 못한 태도는 자녀의 독립심 발달을 저해하므로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친구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친한 친구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관계는 그들이 정체성, 독립성, 사회적 활동 등을 배우는데 도움을 준다(Berger, 1994). 따돌림을 동조한 참여자의 친구는 자신도 그러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강해 보이는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군중심리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그릇된 자녀 양육태도, 가족 및 사회의 무관심은 참여자들의 집단따돌림 피해로 인한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참여자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선학교에서는 집단따돌림이 나쁜 행위이며 피해사실을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도덕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에서는 폭력 장면을 통제하여 폭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아동은 억울함, 분개, 학교생활 불만족, 외로움, 서러움, 고통스러움, 불안함, 자살충동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Lee, 2000; Lee & Koak, 2000; Offler, 2000), 본 연구 참여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괴롭힘을 당하여 괴롭고 속상하며 원망스럽다고 느낀 감정과 유사하였다. 또래관계에서 배척받은 청소년은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

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정, 학교 및 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집단따돌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 부모 및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지만(Park, 2001), 자신의 노력을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한 연구(Pilling, 1998)와 본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지지체계의 도움외에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가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애쓴 방법 중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친구들을 많이 만든 것은 다른 연구결과(Chung & Kim, 2000; Kim, 2000; Yoo, 1999)와 유사하였다. 지지체계의 개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극복은 청소년이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노출될 경우 또 다시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적용과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자료로부터 집단따돌림 피해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간호교육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집단따돌림 청소년 지도 시 보다 전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간호실무 측면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여 그들과의 만남에서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10명으로,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을 가진 참여자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 형태는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이었다. 자료 분석 절차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09개의 구성된 의미, 31개의 주제, 12개의 주제모음 및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의 본질은 5개의 범주인 “열등하다고 느낌”, “돌봄을 받지 못함”, “외로움”, “고통스러움”, “관계 열어가기 및 체념”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친구들보다

열등하여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가족이나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과부터 소외되어 외로워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정서적 따돌림으로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대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지체계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가해자를 용서하여 다시 사이가 회복되므로 정상적인 친구관계를 열어갔다. 그렇지 못한 대상자는 지지체계의 도움을 못 받거나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면서 회피하고 체념하였다.

청소년 집단따돌림 문제는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간호중재는 가정, 학교 및 사회의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개인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와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정, 학교 및 사회측면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와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경험을 통합한 집단따돌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Berger, K. S. (1994). *The developing person through the life span*. New York: Worth Pub.
- Cashman, M. (1998). Schools out. *Nurs Stand*, 13(6), 18.
- Choi, Y. H. (1993).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Seoul: Soomoonsa publishing.
- Chosun Ilbo (2006. 3. 14). Beating · sexual assault...students has been trembled yet.
- Chung, H. K., & Kim, K. H. (2000).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 with the subject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0(1), 137-147.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ng, C. Y. (2001). *Pediatrics*. Seoul: Daehan printing and publishing co. LiD.
- Hong, Y. K. (2000). *The perception comparison of parents*,

- teachers and children on the group outsiders at the prim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The Kyungsoong University of Korea, Busan.
- Jung, E. S., Kim, Y. S., Lee, H. Z., Kim, Y. H., & Song, M. G. (2002). Study on bullying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J Korean Child Health Nurs*, 8(4), 422-434.
- Jung, J. J. (2000). *A study of group ostracization at middle school: in the city of Choonchun*.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Kangwon-Do.
- Kim, H. J. (1998). The relations among maternal psychosocial competence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aster's dissertation,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Busan.
- Kim, H.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self-identity among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The Aju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W.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stress & coping in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dissertation, The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ung-buk.
- Kim, S. Y. J. (1997). Growth, development and care of the adolescent. Seoul: Soomoonsa publishing.
- Kim, W. H. (2001). *A study on actual state and specific property of gang-alien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cusing on upper graders*. master's dissertation, The Inh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oo, B. Y. (1997). *The reason and direction method among adolesent*. A place for conversation of adolescent.
- Lee, C. H. (2000).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group bullying and students' psychological responses: cohesiveness of classroom/self-respect/satisfaction with school life/anxiety*.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C. J., & Koak, G. J. (2000). *The bullying in school: actual condition and specific character*. Seoul: Jipmoondang.
- Lee, J. M. (1999).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group ostracization or harrass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heir solution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im, D. O. (2000). *A study on a counterplan of conditions of a leaving out of the group: mainly the actual conditions of damage by types*. master's dissertation, The Dongguk University of Korea, Seoul.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 67, 2417-2433.
- Offler, E. (2000). Bullying: everybody's problem. *Pediatr Nurs*, 12(9), 22-26.
- Park, M. S. (2001).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 and group isolate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The Inje University of Korea, Busan.
- Pilling, S. (1998). Bully tactics. *Nurs Stand*, 12(31), 21.
- Rosow, I., & Lauritzen, G. (2001). Shattered childhood: a key issue in suicidal behavior among drug addicts?. *Addiction*, 96(2), 227-240.
- Sharp, S. (1996). Self-esteem, response style and victimization: possible ways of preventing victimization through parenting and school based training programmes. *Sch Psychol Int*, 17, 347-357.
- Yoo, H. S. (1999). *The role of school, home, church for conquering of the group-bullying*. master's dissertation, The Chongsin University of Korea, Seoul.